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근) (510) 562-3843
 사목위원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thmschae@yahoo.com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standrewoak@gmail.com
 대건외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목요일 저녁미사 후(대건회관)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항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40			



[제 1독서] 2사무 12,7ㄱ-10.13

[화답송] 시편 32(31),1-2.5.7.11(© 5= 참조)

- ◎ 주님,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씻은 이! 행복하여라, 주님이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영에 거짓이 없는 사람!◎
- 제 잘못을 당신께 아뢰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았나이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나다.”
- 당신은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셨나이다.◎
- 당신은 저의 피신처. 곤경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마음 바른 이들아, 모두 환호하여라. ◎

[제 2독서] 갈라 2, 16. 19-21

[복음 환호송] 1요한 4, 10

- ◎ 알렐루야.
-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셨네.◎

힘들때 주님께 의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지요? [복음] 루카 7,36-8,3<또는 7,36-50>

성가	8시 미사	입당 48	봉헌 -	성체 166	파견 201
	11시 미사	입당 329	봉헌 210 212	성체 151 165	파견 403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11주일(6월 16일)		연중 제12주일(6월 23일)		연중 제13주일(6월 30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스텔라(애리)	황테레사(혜정)	김글라라(순희)	권미카엘(창모)	김안토니오(휘)	전베로니카(진영)
제 1 독서	최분도(환준)	구미카엘(창희)	강요한(신호)	심미카엘(태규)	이바오로(명국)	이베드로(기만)
제 2 독서	인루카(수위)	김테레사(순희)	정스텔라(애리)	신헤레나(순화)	김안젤라(영서)	이골룩바(정연)

오늘의 강론

뉘우침과 용서

요즘 몇 가지 뉴스들을 접하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불법으로 거두어들인 불법자금에 대해 국가가 명한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것도 아니며, 자식이나 가족에게 불법, 편법으로 증여하고 분산시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불법으로 거두어들인 것인데, 현재도 불법을 계속 저지르며, 땡땡거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뉘우칠 줄을 모릅니다. 그 많은 돈들이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물론 대기업이나 사업가들이 살아남기 위해 바친 돈이지만 사실 그 돈들은 국민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 돈의 진짜 주인은 바로 국민입니다. 그러니 그 돈을 국민의 손으로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검찰이든 국세청 직원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월급을 주는 국민의 심부름꾼이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추징금을 끝까지 환수하여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해야 할 본분입니다. 하지만 추징금을 안내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나 추징해야 할 사람들 모두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이며,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살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허나 우리는 약점과 한계를 지닌 나약한 인간이기에 하루 한 순간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는가 봅니다. 그런데 사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직대통령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청할 마음이 없나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우리야의 아내 밧 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죄한 우리야를 죽인 다윗은 경고의 말을 전하는 나탄 예언자의 말을 듣고 곧바로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사무하12, 13)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죄는 지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친 다윗은 하느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우

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나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면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전혀 다른 입장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열심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 바리사이였는데, 그 바리사이인 시몬은 죄인인 여인을 무시하고 있으며, 죄인인 여인은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 받았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보다 그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각자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주님께 용서를 받도록 합시다. 아멘.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생명의 말씀 바리사이 시몬과 죄 많은 여인은 남매가 아니었을까요?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 남매가 있습니다. 오빠는 모든 일에 성실하고 모범적이며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소위 엄친아(엄마 친구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여동생은 자기 멋대로 살면서 말썽만 피우고 주위 사람들로 부터 늘 손가락질 당하는 문제아입니다.

어느 날 여동생이 제대로 큰일을 저지릅니다. 부모님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값비싼 꽃병을 산산조각 내버린 것입니다. 그날 저녁 동생은 아빠의 다리를 주물러 드리며 갖은 애교를 다 부립니다. 오빠는 동생의 행동이 역겹습니다.

복음내용으로 미루어보아 바리사이 시몬과 예수님은 서로 존중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로마사람들처럼 커다란 방석 위에 비스듬히 누워 식사를 하였던 듯한데, 온 동네가 다 아는 죄 많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발치에 있다가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를 풀어 닦아 드립니다. 게다가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까지 발라 드립니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소리죽여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시몬이나 주위 사람들의 생각을 모를 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난감한 처지에 놓였지만 자기변명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여인을 두둔하시면서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빛을 진 두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둘 다 값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빛을 탕감해 주었다.” (루카 7,42)는 말씀이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채권채무관계를 사실대로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는 그 크기와 무관하게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만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용서해 주시면 용서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죄의 빛을 탕감해주신 하느님을 있는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하느님께 모범적인 아들이나, 말썽쟁이 딸이나 모두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바리사이 시몬은 예수님을 최소한의 격식에 맞춰 모셨을 뿐, 정작 중요한 ‘더’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죄 많은 여인은 달랐습니다. 물이 아니라, 자신의 참회의 눈물로 발을 적십니다.

수건이 아니라, 자신의 아름다움의 상징인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분의 머리가 아니라, 발에 입을 맞추고 값비싼 향유까지 발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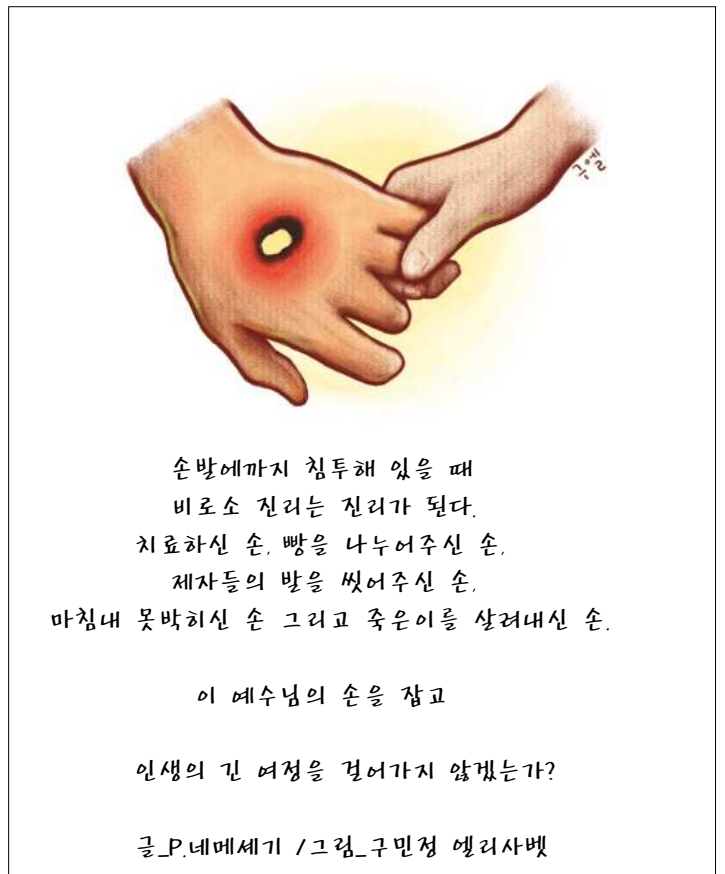
여인은 ‘더’라고 하는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루카 7,50)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바리사이 시몬도 사랑하시고, 죄 많은 여인도 사랑하십니다. 둘 다 당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사랑스러운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시몬과 여인의 태도가 다를 뿐입니다.

엄친아 바리사이 시몬은 “우리 아들 최고!” 라는 부모의 ‘칭찬’에 집착하고, 말썽쟁이 죄 많은 여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청하면 언제라도 다시 받아주시는 부모의 ‘마음’에 매달립니다.

김영국 요셉 신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무총장



말씀의 향기

꼬마들 덕분에

얼마 전 공원 세면대에서 한 무리의 유치원생을 보았습니다. 소풍 왔다가 점심 먹고 양치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아이, 착해. 모두들 컵에다 물 받아서 이를 닦네?” 제 칭찬에 아이들은 신이 났는지 앞 다투어 한마디씩 했습니다.

“우리 유치원에서는 다 이렇게 해요.”

“엄마랑 내 동생도 나 따라서 이렇게 해요.”

“물을 아껴 써야죠. 선생님이 아프리카 아이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죽기도 한댔어요.”

참으로 기특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사람을 생각하며 물을 아끼는 마음이 말입니다. 아이들은 물을 틀어놓고 3분간 양치질을 하면 약 10리터의 물, 즉 아프리카에서 다섯 명이 하루에 마실 물이 낭비된다는 건 몰라도, 물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세상 모든 사람들과 나눠 써야하는 걸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될 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죠? 이 아이들은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이자 멋진 세계시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꼬마들 덕분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한 초등학생에게 받은 이메일을 읽다가 한 대목에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꼭 글로벌 리더가 될 거예요. 영어 경시대회에서 일등할 거구요. 반장선거에도 나갈 거예요. 반장하면 나중에 UN 사무총장 되는데 유리한 거 맞죠?”

큰 꿈을 가진 아이가 기특하기는커녕 안타까웠습니다. 누가 이 꼬마를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물론 목표 자체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글로벌 리더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인 저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훌륭한 세계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는지에 늘 관심을 두며, 그들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는 사람만이 세계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아이들은 이기적이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요즘 길거리에서 긴박한 구호현장에 써달라며 제게 돈을 주는 사람들 대부분은 초·중·고등학생들이니까

그럴 때마다 정말로 기분 좋습니다. 이 학생들이야말로 전 세계 사람을 친구이자 형제자매로 여기며, 세계 한쪽에서 현재 진행 중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자기 힘을 보태는 진짜배기 세계시민이자 미래의 글로벌 리더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더욱 멋진 세계시민으로 키우기 위해 제가 가진 시간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 부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우리 아이들이 세계무대에서 맹활약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가슴 뿌듯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 모두를 형제자매로 만드셨던 하느님께서도 분명히 기뻐하실 겁니다.

한비아 비아
UN자문위원, 이대 초빙교수

머무름

낙태법을 조장하고 승인한 입법자들도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한,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습니다.

낙태를 조장하는 보건 센터의

행정 담당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59항 -

가톨릭전례 **죄는 무엇이며, 고해성사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천주교의 큰 특징 중의 하나가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는 성품성사로 축성된 사제를 통해 하느님께 자신의 잘못과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도대체 죄는 무엇이기에 성사를 통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죄는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손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에 상처를 입혀 형제적 친교를 약화시키거나 파괴하는 것 또한 죄입니다. “죄는 어떤 것에 대한 비뚤어진 애착 때문에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참다운 사랑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849항)

결국 죄는 온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느님에 대한 모욕이고 하느님과 이루는 친교의 단절입니다. 참 행복은 창조주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알고 사랑한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 끊임없이 흐르는 교류를 통해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죄는 이 흐름을 가로 막아 사람이 하느님께 등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심장이 뛰고 건강한 혈액이 온 몸 안에 꾸준히 흐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피가 굳어져 생긴 혈전은 혈액의 흐름을 차단하여 생명유지에 필수통로인 혈관을 파괴합니다. 그것은 동맥경화를 일으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불러옵니다.

죄는 하느님의 은총을 차단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느님과 거리가 멀어 질수록 우리 삶은 어두워지고 절망의 늪은 더욱 깊어갑니다.

깨끗한 물은 우리 몸에 달라붙은 지저분한 흙먼지를 씻어 주어 깨끗한 모습을 되찾아주고, 훌륭한 의사의 처방은 병자를 동맥경화로부터 회복시켜줍니다.

어두움은 빛으로만 제거할 수 있듯이, 죄는 하느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크신 사랑만큼 그분의 용서도 끝없이 깊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기꺼이 매달리셨습니다.

원수들의 용서를 위한 기도가 십자가에서 울려 퍼집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루카 23,34) 용서의 위대함이 세상에 퍼져가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명은 친구만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느님의 사랑에 접목되면 가능합니다. 하느님과의 친교를 방해하는 죄는 구원에 있어 결정적 걸림돌이며 대죄를 지은 채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대죄에 떨어져 세례 때 받은 하느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일치에 손상을 입힌 사람들을 위하여 고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446항)

고해성사는 비참한 자신의 처지를 직시하고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는 탕자처럼 깊은 뉘우침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고해성사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회복시켜 주며 하느님과 결합하게 해주고, 참된 영적 부활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고해성사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문명의 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자만의 결과입니다. 죄는 육체의 양보다 더 처참한 절망과 죽음을 가져옵니다.

고해성사는 선택이 아니고 치유를 위한 필수입니다. 고해성사는 자유를 향한 새로운 출애굽이며, 우리 영혼에 평화가 배달되는 주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루카 7,47)

※ 참고: 가톨릭교회교리서 1422-1470항, 1846-1869항

사목국 연구실

- 성 쟁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날짜	지향	봉헌자
6월 16일 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정아네스	가족
	연 임그레고리오(재선)	가족
	연 윤세실리아(귀병)	이골롬바
	연 김사비나(옥순)	10구역원 일동
	연 김사비나(옥순)	이토마스(환)
	생 정로사(화봉)	익명
	생 박글라라와 자손들	박데레사
	생 송희성	김엘리사벳
	생 송성찬/송윤경	송미카엘(인근)가정
	생 김스테파노(병수)	이베로니카
	생 박세레라(동신)	익명
6월 18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연 김사비나(옥순)	정안드레아(일양)
	생 성루카	채토마스
	생 박헬레나	채토마스
6월 19일 수	연 부모님	이바오로
	생 서데레사	박데레사
6월 21일 금	연 형제/자매	이바오로
6월 22일 토	연 이베로니카	자녀들
	연 허용중	가족
	생 이스텔라(재숙)	익명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 약정액 \$311,015.28(185 세대 약정)
 * 봉헌액 \$291,545.28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84	243	-	327
헌 금	\$590	\$1,147	-	\$1,737

< 교무금 > \$3,123

배점마(5-6) 송분학(6) 전숙희(6) 김순이(6)
 고연석(6) 남금지(6) 채용분(6) 김영순(6)
 이미영(5-6) 전문자(6) 김옥녀(6) 황정기(7-12)
 황정희(6) 김관숙(6) 임윤택(6) 천종욱(6)
 육승주(6) 심재구(5-6) 이명란(6) 박영실(5-6)
 허동원(5-6) 김정복(6) 조우송(6) 한서연(7-8)
 김영희(6) 유근봉(1-6) 김세록(4-5) 지영남(1-6)
 임희숙(3-5)

< 성소후원금 > \$120

송분학(6) 전숙희(6) 김순이(6) 채용분(6)
 김정복(6) 박영실(5-6) 이명란(6) 임윤택(6)

< Bishop's Appeal >

박영실(5-6)

< 감사 헌금 > 기타동호회 \$240

< 2차 헌금 > \$685

< 지붕공사 & 소방설비 공사 헌금>

* 목표액 \$48,000

* 지난 주 약정 \$16,300

본당신부님, 김관숙, 익명, 서춘애, 이정훈,
 이창용, 조상희, 김순이, 신현규, 채성일,
 윤덕림, 윤문철, 익명, 최몽렬, 윤장익,
 송동기, 조덕행, 문아영, 문재균

* 지난 주 봉헌 \$1,280

이상우, 조성재, 박진영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지 사 양 -

◆ 앞는 이들을 위한 기도 : 오늘 미사 중

◆ 예비자 교리반 모집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예비자 입교식 : 6월 23일 교중미사 중

◆ 청장년 레지오 단원 모집

본당 레지오 확장을 위해 청장년 레지오 단원을 모집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김세록 제랄드 510-292-5881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회의실
- 성경공부 : 매월 첫째주일/셋째주 금요일 저녁 7시반
- 기도모임 : 매주일 10시 ~ 10시 40분 1회의실
- * 평협회의 : 6월 16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사목회의 : 6월 23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하상회 : 6월 23일(다음주) 12시반 106호실

◆ 요아킴회/안나회 야유회

일시 : 6월 22일(토) 아침 9시 성당 출발

장소 : Point Reyes

회비 : \$10(45명 선착순)

*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니 두꺼운 옷을 준비하십시오.

◆ 북가주 ME 25차 첫 주말

일시 : 7월 5일(금) ~ 7월 7일(일) 2박 3일

장소 : 산다미아노 피정센터(덴빌 소재)

문의 : 한치용 요셉/한현자 헬레나 415-810-3175

◆ 향심기도 피정

일시 : 7월 26일(금) 오후 6시 - 7월 28일(일) 오전 11시

장소 : Burlingame 에 있는 Mercy Center

참가비 : \$260(독방)

지도 : 서울교구 향심기도 사목담당 이승구 신부님

문의 : 김명환 안드레아 925-262-7094

◆ 서중부 여성 제 9차 꾸르실료 참가자 신청

일시 : 8월 15일(목) - 8월 18일(일) 3박 4일간

대상 : 견진을 받으신 분

신청마감 : 6월 16일까지

문의 및 신청 : 이창용 레이몬드 510-688-0157

◆ 19차 북가주 성령대회

일시 : 8월 10일(토) 장소 : 샌프란시스코 성당

강사 : 김명선 사도요한 신부님

(부산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지도신부)

참가비 : \$25(점심, 저녁 제공)

문의 : 성령기도회 or 기도회장 510-684-7207

e-mail : schun3@netzero.com

* 성령대회 파견미사 때 미사봉헌을 위한 가정봉헌 및
사업체 봉헌도 함께 접수합니다.

◆ 김치바자회를 위해 김치병을 수집합니다.

◆ 뜨개질 사랑회 회원 모집

연령 상관 없이 관심 있는 분들 환영합니다.

문의 : 이해란 세실리아/김승희 데레사 510-703-7350

◆ 독서클럽 회원 모집

책을 읽고 함께 감상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

문의 : 김관숙 크리스티나 510-899-9795

김승희 데레사 510-703-7350

◆ 디지털 카메라 장비구입 요령 강의

일시 : 6월 30일 교중미사 후 107호실

강사 : 조덕행 에드몬드

대상 : 관심 있는 분 누구나

*** 새로 오신 분 ***

8-2(버클리) 구역

김하진 요셉/유효성 아네스 가정 ☎ 202-340-1070

주일학교 소식

- 영어미사 시작 : 6월 23일

- 연합 중고등부 여름 캠프 문의

campdirectors@gmail.com

- 주일학교 개강 : 9월 8일

안국학교 등록 안내(2013-2014)

- 개강 : 2013년 9월 7일

- SAT II 한국어 시험반(8/3, 8/10, 8/17)

- 특별활동수업 : 소고춤(무용전공 선생님 지도)

- 수업료 : 6월말까지 등록 \$285(등록비 내는 날 기준)

그 이후 등록 \$300

- 문의 : 정이경 가브리엘라 415-517-3544